

첫번째 파이프 오르간

미국 교회서 기증, 파이프 1425개 20년만에 새 파이프 오르간 교체

1983년 3월 27일 2부예배 때 파이프 오르간 봉헌식을 거행했다. 1,425개의 파이프를 보유한 이 오르간은 1923년 제작해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퍼드장로교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미국 오르간협회 회장 스메타스 목사가 관리하다가 연동교회에 기증 설치했다. 제작 당시 9음전을 1953년 19음전으로 확장한 후 1970년 연주대와 제전기 장치 등을 현대화시켜 재조립했는데 이때 건반은 2단, 음색은 61가지였다. 1982년 연동교회는 헨리 메이슨 린세이회사에 재조립을 의뢰해 오르간의 연주대와 파이프를 제외하고 모두 새것으로 바꾸어 5음전을 추가,

총 24음전이 되게 했는데 제작비 4천여만원을 포함해 총액 5천3백만2천920원을 들었다. 1984년 교회창립 9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동년 9월 26일 파이프 오르간 연주예배가 있었을 때 기증자인 스메타스 목사 부부가 참석해 연주하고 설교도 했으며 감사패를 받았다.

2004년 오르간의 연주대는 두번째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인 트레이너씨에게 양도하고 파이프는 두번째 파이프 오르간 조립 때 거의 이용돼, 강화수양관에 첫번째 오르간 파이프를 이용한 역사적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산업부

성가경연대회 · 수련회 등 행사 다채로워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물질 아끼지 않아



산업부 창립교사들 - 1983



하계수련회(영풍초등학교) - 1983



산업부 부원 결혼기념(신랑 : 정행식 · 신부 : 이옥녀) - 1986



복음성가경연대회 - 1987



금곡교회 방문 - 1989



하기수양회(후암수양관) - 1989

1983년 1월 2일 창립예배와 함께 산업부가 출범했다. 교육관 305호실에서 25세 미만 근로청년 37명을 비롯해 부장 장하린 집사 및 부감 변효철 집사 등이 참석, 전체 16개조의 회칙을 통과시키고 초대회장에 정행식 성도를 선출했다.

발취해 보면 1984년 기도회(영락기도원), 1985년 연극공연(가시밭길...), 1986년 대심방(부원 가정), 1987년 복음성가경연대회, 1988년 성탄축하, 1989년 임원수련회(감람산기도원) 등 활동이 다양했고 연동역사관에 세 권의 앨범을 남겼다.

교회창립 90주년

연동교회사료실 개관 '연동교회90년사' 발간



교회창립 90주년이 되는 1984년은 천주교(구교)가 전래된 지 200년, 기독교(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연동교회는 90년 동안 한국 장로교회의 어머니교회로서 교회적·교육적, 그리고 문화적·사회적 사명을 다했다.

동년 9월 30일 거행된 기념예배에 파이프 오르간 기증자 스메타스 목사 부부를 비롯해 게일 목사의 딸(로이드 커크)과 손녀(로즈마리 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제2회 게일문화상과 송암봉사상을 수여했으며(별지) 연동사료실 개관(별지) 및 '연동교회 90년사' 발간 등 기념사업은 두드러진 것들이었다. 기념행사는 의료봉사·주일학교 축하잔치·유치원

및 의숙 발표회·바자회·주일학교 작품전시회 및 선교의밤·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전도의날·주민 초대잔치·신학강좌·교육대회·문화의밤·기념음악회·기념성회 등 교회창립 이래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다.

- 상 : 기념예배
- 중 : 정문 현수막
- 하 : 기념 음악회



연동교회90년사

교회창립 90주년 기념행사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의료봉사(사회관) : 9.23
- ② 유치원 축하잔치(본당) : 9.23
- ③ 여전도회 · 구역회 바자회(사회관) : 9.25-26
- ④ 연동의숙 발표회(본당) : 9.24
- ⑤ 주민 초대잔치(사회관) : 9.27
- ⑥ 연동사료실 개관(사료실) : 9.30
- ⑦ 개척교회 교역자 초청(당회실) : 10.11

제직연수회

연동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체험도 친교·기도와 목회지침 숙지 기회



1984. 5. 7-8

1984년도 제직연수회가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열렸다. 제직 160명이 참석한 이날 주제강연은 '연동 90년의 회고와 전망'(김형태 목사), '도시교회 진단 급선무'(이종형 목사)였다. 성경공부는 이정민 목사 지도로 에베소서 3장 14-21절을 공부했다.



1987. 5. 5(화)

1987년도 제직연수회(2백여명)는 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 강연·분임토의·친교로 이어졌는데 모두가 지상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명령에 충성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 아래 사진은 1989년 6월 26-29일 연동동산의 제직영성 쇄신 특별기도회의 한 장면.



연동사료실

교회계의 본보기로 사료실의 효시 한일합방 때 태극기·교회기 보존



개관 테이프 커팅

1984년 9월 30일 오후 4시 김형태 목사와 박종렬 총회장, 황재경 목사와 게일 목사의 딸 로이드 커크 여사가 개관 테이프를 끊고 개관예배를 드림으로써 연동사료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교회창립 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0년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의 재조명 및 유품의 보관·전시를 위해 담임목사실(211호실과 212호실)을 내주어 마련한 사료실은 경신역사관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시공한 고춘섭 집사가 3개월간의 각고 끝에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이눌서 목사에게 기증한 액자(1907년)와 한일합방

으로 하강했던 태극기 및 교회기(1900대)를 비롯해 많은 역사자료가 전시 보존된 연동사료실은 국내 교회 가운데 그 효시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연동교회 명물로 자리잡았다.



연혁벽판 시공 장면



북쪽 대형 진열장



남쪽 인명벽판 및 벽난로형 전시대



북·동·남쪽을 입체적으로 보는 사료실 내부

전도위원회 · 남선교회 지원교회

수시로 전국 지원교회 찾아가 실태파악
전국 지원교회 교역자 초청 위로하기도



진도 송광교회 - 1984



통영 도산교회 - 1985



창동 재생교회 - 1985



양주 일영교회 - 1986



전도위원회와 남선교회는 1980년대에도 국내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와 선교기관의 지원에 수와 양을 늘려가며 지속했다. 제1남선교회에서 건축비(1천5백만원)를 지원한 송광교회를 비롯해 도산교회 · 재생교회 · 일영교회(사진: 상 · 중) 외 58교회(기관 포함)가 그 대상이었다. 전도위원회와 남선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현지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기

도 했다. 1987년 6월 9-10일 경상도 지역 4교회, 23-25일 전라도 지역 8교회를 찾아갔으며 1989년에는 미자립교회 15교회, 선교기관 7개처, 일시 지원교회 6교회 등 모두 28개처에 3천6백여만원을 지원했다. 1900년 7월 4일(수)을 '지원교회 교역자 초청의 날'로 정하고 중산교회 이인우 전도사의 32명을 초청해 위로하고 현지사정을 들었다.(아래 사진)

장로 장립(4)

상 : 강신우 · 함의순 장로 1984
 중 : 김관일 · 오인탁 장로 1986 / 김태룡 · 이은성 장로 1987
 하 : 박인석 · 심희순 · 김기호 장로 1989



① 함의순 장로 ② 강신우 장로



① 오인탁 장로 ② 김관일 장로



① 이은성 장로 ② 김태룡 장로



① 박인석 장로 ② 심희순 장로 ③ 김기호 장로(둘째줄 : 허재철 목사 뒤)